

# 한국당 누굴 추천할까?...조사위 연내 출범할까?

## 5·18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발의된 지 2년 3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됐고, 지난 2018년 2월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같은해 9월14일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표류하다가 이날 비로소 출발점에 서게 됐다.

연내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5·18 40주년인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조사위원 추천을 문제삼아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제동'을 걸었던 자유한국당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에 곧바로 나선다면 올내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군인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

###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추가

### 한국당 추천 위원 초미 관심

### 40주년 내년 조사 활동 기대

그러나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사위원 재추진 요구를 1년 이상 미루며 사실상 진상조사위원 출법을 막아왔다는 점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라도 즉각적인 조사위원 추천에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다. 또, 한국당이 과거처럼 5·18을 폄훼하고 왜곡한 전력이 있거나 결격 있는 인사를 추천해 또 다시 논란을 반복하고, 시간을 지체할 경우에는 연내 진상조사위원 출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내 조사위원 출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을 통한 국민통합이라는 특별법 취지에 맞도록 전략적인 자세를 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동섭 광주시장은 이날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환영 성명을 통

해 "개정안은 한국당이 발의했고, 진상규명 조사위원의 자격요건도 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추가한 만큼 또다시 추천 인사 자격을 문제 삼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연시키려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통과된 법안인 만큼(한국당은) 조사위원 출법과 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합의의 정신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도 연내 진상조사위원이 출범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신당(가칭) 장병안(광주 동남갑) 의원은 "발포명령자, 성폭력, 헬기 사격, 계엄군 사망자의 현충원 안장 경과 등 5·18에 관한 진실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법안 통과를 계기로 최대한 빨리 5·18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원 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김중호 여사와 함께 31일 부산 남천성당에서 염수된 모친 강한옥 여사의 발인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깊은 추모와 애도"...김정은 위원장 문 대통령에 조의문

### 강한옥 여사 양상 하늬공원 안장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1일 문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조의를 보내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故)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양으로 조의를 전달했다"며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강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조의문은 전날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됐고, 같은 날 밤 늦은 시각에 빈소가 차려진 부산 남천성당에

서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조의문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북측으로부터 판문점에서 전달받았고, 윤 실장은 전날 밤 빈소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납축 인사에 대해 조의를 표한 것은 지난 6월 19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별세했을 때 이후 처음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전선전동부 제1부부장을 직접 보내 조의문과 조화를 전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소통한 것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 접촉 이후 꼭 4개월 만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을 면치 못하고 남북관계 역시 냉각기에 빠진 가운데 김 위원장

이 문 대통령에게 조의를 보내음에 따라 남북관계, 나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모친인 강한옥 여사는 이날 발인을 거쳐 경남 양상 하늬공원에 안장됐다. 이곳은 1978년 별세한 문 대통령 부친이 안장된 곳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인 고(故) 강한옥 여사의 장례미사를 마친 후 안장식에서 '어머님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국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바로 청와대로 복귀했으며 내일부터 정상근무를 예정이다.

이동섭 기자 tuim@kwangju.co.kr

## "군출신 인사 조사위원회는 한국당의 꿈수"

### 민주당 의원들 5·18특별법 개정안 무더기 반대·기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및 기권표를 던져 논쟁을 끌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재석 171인 가운데 찬성 137인, 반대 19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다.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34명 가운데 33명이 민주당 의원으로 확인됐다. 반대는 전

남의 이계호 의원을 필두로 송영길, 박광운, 윤호덕, 위성근, 신경민, 이종걸, 박경미, 이재정, 이훈, 김상희, 설훈, 조승래, 김경호, 김경우, 김영호, 남인순, 김경협 의원 등으로 집계됐다. 또 기권으로는 홍익표, 권미혁, 서형수, 이우상, 박형근, 김한정, 진선미, 임종성, 전현희, 표창원, 강훈식, 백혜련, 우상호 의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계호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개정안 통과와 관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물 밑 공작대는 알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군 출신 인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꿈수 섞인 개정안을 찬성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얼마나 폄훼해 왔는지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진다"며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적격 인사를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 역사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소음 보상법 본회의 통과...소송 없이 군공항 소음 보상 받는다

### 국방부→구청 통해 보상금 지급

군사기지·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공항 소음 보상법)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년 후부터 군 공항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광주 등 대도시 85데크 이상)에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날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1종~3종의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소송없이 보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구청에 통보하면, 구청은 해당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피해 주민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구청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면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이날 군공항 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동섭 광주시장은 "정부

와 협력을 강화해 대통령령 제정 등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1호 법안'으로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법안'을 발의했던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2004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국회 통과에 무려 15년이 걸렸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것인 만큼 군 공항 이전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만간 광주에서 '군 공항 소음 보상법 보고 및 군 공항 이전 촉구 대회'를 열 계획이다.

최경원 기자 cki@kwangju.co.kr

## 北 조의문 이튿날 발사체...남북관계 개선 힘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를 표한 다음 날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불가촉한 행보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험로를 맞닥뜨린 형국이다.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조의를 보내고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가 하루 만에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지난 31일 오후 1시 50분 김

위원장이 전날 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조의를 보내왔다고 발표했다. 이때만 해도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의 조의문이 남북관계의 막힌 부분을 뚫어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왔다.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은 물론, 북미가 '하노이 노딜' 후 7개월만 이날 초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둘러싸고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촉진력'도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조의문 수령 사실

을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인 오후 4시 51분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이 알려지자 이런 분위기가 반전됐다. 청와대로서는 조의를 밝히는 바로 다음 날 이어진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일련 당황스러움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이 남북·북미 관계의 경색 속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매진해 왔지만 북한의 이번 행동은 대화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의도로 읽힐 수 있어서다. 한반도 평화를 기본으로 한 평화경제 구상 등의 당위성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남북을 '패싱'한 채 비핵화 문제가 있고, 당면과 담판을 짓겠다는 통미봉남(通美封南)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  |  |  |  |
|--|--|--|--|
| <p>대한민국대표종횡여행기업</p> <h1>롯데관광 LOTTE TOUR</h1> <p>대표전화 1577-3000</p> <p>광주지사 1688-1104</p> <p><b>JEJUair</b></p> <p>제주항공과 함께하는</p> <h2>무안 출발</h2> <p>하이난&amp;괌 신규취항 기념</p> <h3>특별할인 혜택!</h3> <h1>5% 할인</h1> <p>- 11/8일까지 예약시 - 단, 현금결제 조건<br/>- 하이난 품격, 광 정통 상품만 적용가능</p>  | <p><b>신규 취항</b></p> <p>▶ 12/24,25,26,27,28,29 1/1,2~ 매일출발</p> <p><b>정통 괌</b>(성인2+소아2 패밀리티켓가) <b>JEJUair 4일</b></p> <p>669,000부터 <small>₩830(성인), ₩10(소아) 선택관광 있음</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안/괌(3)/무안 PIC리조트 3박(워터파크 및 부대시설 이용)</li> <li>자유시간/호텔 내 부대시설, 현지 픽업 신청시 2일차 시내(스페인 광장, 사랑의 절벽, 파세오 공원), 왕복항공료 및 각종 TAX, 호텔(PIC리조트-슈퍼리어를 기준), 여행자보험 1억원, 전일정 호텔식(골드카드, 환타지디너쇼-현장예약 필수)</li> </ul> | <p>나를 위한 최고의 여행지 <b>다낭</b></p> <p><b>다낭/호이안 (4명이상 출발) JEJUair 4일</b></p> <p><b>정통 549,000부터</b> <small>₩580 선택관광 있음</small> · 무안/다낭(3)/무안</p> <p>▶ 11/11,13,14,15,16,17,18~ 매일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일정 특급 호텔(만타리베르포트 호텔/동급), 1일 자유시간</li> <li>바나산 국립공원, 대성당, 까오다이고 사원, 내륙, 펜가사당, 풍홍 의점, 광조화관 등, 전통마사지 1시간, 투분강 보트투어+호이안 박물관, ICE커피 1잔&amp;열대과일 사식, 노비누 1개(1인당) 제공 등</li> </ul> | <p><b>즐거자 휴양과 액티비티를 동시에 세부</b></p> <p><b>세부(솔레아씨부리조트) JEJUair 5일</b></p> <p><b>품격 549,000부터</b> <small>₩580 선택관광 있음</small> · 무안/세부(3)/무안</p> <p>▶ 11/12,19,26,30 12/3,4~ 매주 화,수,금,토요일 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O7기/가이드 경비(ANO소풍&amp;이동반값, 전 일정 5성급 리조트)</li> <li>호핑투어, 스톱오버 1시간, 열대과일시장, 체험다이어링 강습회, 레크리 코 민속공연 관람 및 디너, 코코넛 비누+도리망고+이로망고, 스낵 바스켓, OFF로션, 막탄 아강강상, 베이비룩, 씨푸드 런치, 리조트 석식 1회, 세부 시내관광(산페드도 요새 등)</li> </ul> |
|  | <p>▶ 12/24,25,26,27,28,29 1/1,2,3,4~ 매일출발</p> <p><b>정통 괌</b>(공항→리조트 왕복픽업+이동반값) <b>JEJUair 4일</b></p> <p>1,089,000부터 <small>₩830(성인), ₩50(소아) 선택관광 있음</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안/괌(3)/무안 PIC리조트 3박(워터파크 및 부대시설 이용)</li> <li>공항(→)리조트 왕복픽업, 자유시간/호텔 내 부대시설, 스페인 광장, 사랑의 절벽, 파세오 공원, 왕복항공료 및 각종 TAX, 호텔(PIC리조트-슈퍼리어를 기준), 여행자보험 1억원, 전일정 호텔식(골드카드, 환타지디너쇼-현장예약 필수)</li> </ul>                | <p><b>다낭/호이안/후회 (4명이상 출발) JEJUair 4일</b></p> <p><b>알뜰 519,000부터</b> <small>₩580 선택관광 있음</small> · 무안/다낭(3)/무안</p> <p>▶ 11/11,13,14,15,16,17,18~ 매일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일정 특급 호텔(다나시 호텔/동급), 바나산 국립공원</li> <li>대성당, 까오다이고 사원, 내륙, 펜가사당, 풍홍의점, 광조화관 등, 전통마사지 1시간, 투분강 보트투어+호이안 박물관, ICE커피 1잔 &amp; 열대과일, 노비누 1개(1인당), 카이민 왕복, 후에 왕궁(오로, 태화전, 자금성 등)</li> </ul>                  | <p><b>휴양천국 힐링여행지 코타키나발루</b></p> <p><b>코타키나발루(초특급 리조트) JEJUair 5일</b></p> <p><b>품격 929,000부터</b> <small>₩830 선택관광 있음</small> · 무안/코타키나발루(3)/무안</p> <p>▶ 11/7,14,21,28 12/5,12 [단, 6회 한정특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일정 초특급 호텔(만타리베르포트 호텔/동급)</li> <li>호핑투어(마루섬), 투이만 섀넬낚시 투어, 섀넬 나이트 투어, 비치 샌들, 비치백 중점, 코타키나발루 시내관광(제설포인트, 사바주청사, 이슬람사원), 현지식 BBQ, 스타트보드, 비비백, 리조트 석식 1회 등, 섀넬 나이트투어 진행시(섀넬상+아지정투어+코코넛음료 시음)</li> </ul>       |
| <p><b>신규 취항</b></p> <p>▶ 11/9,13,16,20,23,27 12/4,7,11,14~ 매주 수(5일), 토(6일)출발</p> <p><b>알뜰 하이난(싼야) JEJUair 5/6일</b></p> <p>199,000부터 <small>₩840(성인), ₩50(소아) 선택관광 있음</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안/하이난(3/4)기내배우무안</li> <li>전 일정 준5성급 호텔(그랜드 매트루 파크 호텔/코니퍼 호텔)</li> <li>자유시간/호텔 내 부대시설, 대동해 해변, 푸시제+열대과일시장, 심이엔세정(CDF), 왕복항공료 및 각종 TAX, 호텔, 식사, 차량, 가이드, 여행자보험 1억원</li> </ul> | <p><b>코타키나발루(준특급 호텔) JEJUair 5일</b></p> <p><b>알뜰 479,000부터</b> <small>₩830 선택관광 있음</small> · 무안/코타키나발루(3)/무안</p> <p>▶ 11/14,28 12/5,12,19,26~ 매주 목요일 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일자유+시내관광+악시+이동반값, 링가도 호텔(준특급/동급)</li> <li>아일랜드 호핑, 악시 나이트 투어, 라군파 섀넬보트, 시내관광(제설포인트, 사바주 청사, 이슬람사원), 현지식 BBQ, 스타트보드, 현지</li> </ul>  | <p><b>대만(화려/야류/지우펀) JEJUair 4일</b></p> <p><b>정통 579,000부터</b> <small>₩830 선택관광 있음</small> · 무안/타이베이(3)/무안</p> <p>▶ 11/12,13,15,16,19,20~ 매주 화,수,금,토요일 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일정 특급 호텔(타이메이 인하우스 호텔/동급)</li> <li>지우펀, 야류 해상공원, 고궁박물관, 스핀 천둥, 총력서, 화관국립공원, 대만의 유명 먹거리(타이메이 레스토랑, 몽골리안BBQ) 등</li> </ul>  |  |

가견보통내역 크루즈 선실료 및 항공료,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인전경비단가] ●여행유류/●여행저택/●항공권/●호텔/●여행지 4단계 구분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c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지] 필요로 하는 일부 선택관광(관광) 있음/없음 상용에 따라 선택관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은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참조 [비지] 지역외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비지] 소외지역의 자율적 선택관광 상품에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여행경비는 여행기상변동으로 인입되고 있습니다. ●종로구청: 일반여행권 497(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권 영업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타여행 상품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보험리자번호: 1598-9392 ●여행보험지: 부산항/속초항 ●최소항일 10명 ●크루즈 2인 1실 사생활보장제외 ●요동행: 항공, 버스,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 열회, 일일권, 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